

학생모집과 교육의 질 관리

황 대 준 |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

I. 입학자원 감소와 대학의 위기

2003학년도는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서 국내 대학들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해로서 기록되고 있다. 대학 모집정원이 지원자들 보다 많은 공급과잉 현상에 따라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2003학년도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와 신입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 문제는 대학들이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할 시점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최근 7월 3일 보도된 전남·광주 지역의 5개 국립대학들(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여수대, 목포해양대)이 대학연합체제 구축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의 총장들간 합의서 채택은 현 국내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연합체제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남·광주 지역의 국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미국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 대학 다 캠퍼스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그 동안 우려를 하고는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구체적인 대학의 통합사례는 심각한 수

준의 미충원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강도 높은 대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간 M&A, 대학간 연합과 같은 빅딜을 포함해서 Win-Win을 겨냥한 다양한 형태의 자구 노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학들이 겪고 있는 미충원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의 주요 원인은 대학입학지원자 수와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자원 부족과 수도권 집중화 및 특정분야(인문학, 사회학, 의학, 약학, 교육대학)의 편중지원 경향을 들 수가 있다. 특히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지원자 수의 감소는 미충원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학정원 대비 진학대상 연령인구비가 2.15에 달했던 2001학년도의 경우 전체대학의 미충원률은 3.9%에 머물렀던 반면, 진학대상 연령인구비가 1.85에 머물렀던 2003학년도의 경우는 미충원률이 9.8%로 무려 251%로 증가되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학입학자원에 해당되는 진학대상 연령인구가 2003학년도 709,922명에서 2006학년도에는 610,756명으로

“

국내 대학들이 겪고 있는 미충원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의 주요 원인은 대학입학지원자 수와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지원 부족과 수도권 집중화 및 특정분야(인문학, 사회학, 의학, 약학, 교육대학)의 편중지원 경향을 들 수가 있다.

”

현재 대비 약 14%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현재의 대학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대학정원 대비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상대적인 비율이 1.59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충원률은 최소 12%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입학지원자 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진학대상 연령인구를 예측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663,000명에 이르는 진학대상 연령인구는 2008년까지는 해마다 19,000~45,000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2009년도에 현재 수준을 회복한 후부터는 증가세가 계속되어 2011년도에는 70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1년도 이후부터는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감소현상이 계속되어서 2050년도에 이르러서는 2003년도의 52% 수준인 367,000명으로 대폭 감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감소 추세는 대학들의 미충원률을 확대시켜서 대학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충원률에 영향을 주는 학령인구의 변화 외에도 새로운 교육방법(e-Learning, blended learning 등)의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사이버대학, 온라인대학

등)들은 기존 대학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신입생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의 미충원 문제는 대학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원조정은 각 대학의 상황과 국가차원의 전문인력 수급계획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수반되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현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 대학이 신입생 확보를 위하여 숙고해야 할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이러한 방법들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 또한 필요한 전략을 어떤 관점에서 개발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는 관점에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한다.

II. 대학들의 미충원 현황 분석

2003학년도 대학입학시험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불균형이 현실화된 원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체 710,903명(4년제 대학(199개교) : 384,773명, 교육대학(11개교) : 5,015명, 전문대학(158개

〈표 1〉 진학대상 연령인구 분석

입학년도	진학인구		
	출생년도	학령인구	진학대상 연령인구
2000	1981	850,184	846,381
2001	1982	826,889	818,742
2002	1983	777,641	767,955
2003	1984	719,161	709,922
2004	1985	663,399	657,940
2005	1986	630,341	927,194
2006	1987	611,173	610,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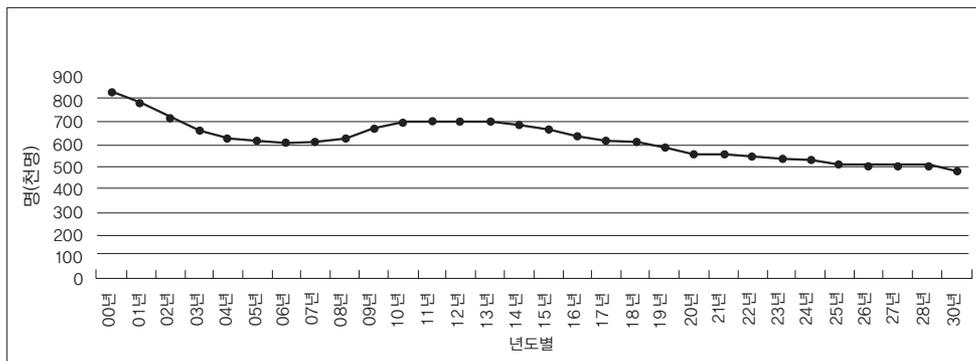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표 2〉 연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변동 추이

(단위 : 명, %)

학년도	재학생		졸업생		검정·기타		합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998	613,376	69.3	261,423	29.5	10,416	1.2	885,215
1999	623,130	71.7	233,893	26.9	11,620	1.4	868,643
2000	631,745	70.5	250,064	27.9	14,313	1.6	896,122
2001	603,238	69.1	254,538	29.2	14,417	1.7	872,193
2002	541,705	73.3	185,625	25.1	11,484	1.6	738,814
2003	482,075	71.3	179,733	26.6	13,951	2.1	675,759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1) 연도별 4년제 대학 입학정원 현황

교) : 285,922명, 산업대학 : 35,193명)에 달하는 대학의 입학정원과 비교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인원은 오히려 35,144명이 적은 675,759명을 기록함으로써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대학들과 지방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학입시에서 수시전형이 도입된 2000학년도 이후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에 소재한 수도권 대학들의 미충원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일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지역과 부산지역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소재 대학(이하 지방대학)들의 경우에는 미충원 비율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2003학년도의 경우 미충원률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 지역은 대학입학정원을 늘린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및 대구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지역 대학들의 미충원률은 2001학년도의 경우 대구 1.1%, 광주 3.4%, 전북 4.7%로부터 2003학년도에는 대구 10.5%, 광주 23.7%, 전북 26.3%로 대폭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기간 동안 미충원률은 대구의 경우 955%, 광주의 경우 697%, 전북의 경우는 560%로 증가되어 전국의 미충원률 평균 증가율 251%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모집정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이 2.0을 상회하는 경우는 대체로 낮은 미충원률을 보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남과 제주의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진출률이 높은 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구의 경우에는 높은 진출률 외에도 대폭적인 증원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반대로 모집정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이 2.0 미만이지만 비교적 낮은 미

충원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 충남과 충북 지역은 서울소재 대학들의 지방 분교가 위치해 있고, 한편으로는 서울로부터 2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3학년도에 가장 높은 미충원률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 전남, 전북과 강원지역은 공통적으로 모집정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이 0.8~1.74로서 상대적으로 낮고, 모집정원을 늘렸으며 상대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진출률 또한 높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미충원 문제는 인원 수에 있어서도 2001학년도에는 14,898명에서 2002학년도 21,973명, 2003학년도에는 37,684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급과잉 시대의 대학은 공급자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수요자 중심적 사고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기다리는 입학홍보로부터 찾아가는 입학홍보로의 방법 전환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Ⅲ. 교육의 질 관리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 문제는 6차 교육과정을 기초로 대학입학전형이 수시, 특차, 정시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을 반영하려고 시도한 현재의 대학입학 전형제도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입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충원 문제와는 달리, 국내 모든 대학들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신입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대학간의 폭 넓은 정보 교환을 통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각 대학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

〈표 3〉 최근 3년간 시도별 미충원 인원 현황

시도별	대학수	모집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률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강원	10	19,507	19,526	20,833	572	1408	3292	2.9%	7.2%	15.8%
경기	24	37,268	35,816	37,510	924	784	725	2.5%	2.2%	1.9%
경남	10	19,797	17,496	20,444	1971	963	2863	10.0%	5.5%	14.0%
경북	20	33,670	32,895	32,467	1656	3462	5099	4.9%	10.5%	15.7%
광주	8	17,378	17,192	19,130	591	1718	4526	3.4%	10.0%	23.7%
대구	3	10,558	8,859	12,797	115	231	1340	1.1%	2.6%	10.5%
대전	10	22,548	19,325	20,113	772	803	1363	3.4%	4.2%	6.8%
부산	13	34,652	33,801	34,131	981	921	925	2.8%	2.7%	2.7%
서울	42	80,793	82,358	78,793	657	961	625	0.8%	1.2%	0.8%
울산	1	3108	3019	3056	20	56	53	0.6%	1.9%	1.7%
인천	5	6754	6470	6629	154	150	168	2.3%	2.3%	2.5%
전남	13	15,338	13,509	13,815	1641	2722	3515	10.7%	20.1%	25.4%
전북	11	23,600	22,585	24,273	1109	3156	6384	4.7%	14.0%	26.3%
제주	3	3488	3291	3568	242	448	759	6.9%	13.6%	21.3%
충남	16	32,338	31,968	36,892	861	1289	2380	2.7%	4.0%	6.5%
충북	10	17,509	17,470	18,319	631	899	1664	3.6%	5.1%	9.1%
합계	199	380,307	367,582	384,773	14,898	21,973	37,684	3.9%	6.0%	9.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어서 공식적인 자료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입생의 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서도 일간지에 보도된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수학성취도 분석 결과는 신입생들의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에 진학한 이공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수학성취도 분석결과는 낙제률이 2001학년도 8%로부터 2002학년도에는 13.9%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분석결과는 국내 다른 대학들에 진학한 신입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 현실을 짐작케 하는 것으로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신입생 학력저하 현상은 이공계 분야 지원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분야의 수학을 위해서는 기초수학능력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학, 물리, 화학 등에 관한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대학신입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감소, 어려운 학문을 기피하려는 세대와 함께

〈표 4〉 2003학년도 시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 현황

(단위 : 명)

시도별	합계	계열별			출신별				성별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기타	남학생	여학생
서울	184,085	98,822	53,316	31,947	106,786	73,114	4139	46	97,756	86,329
부산	59,411	32,211	17,047	10,153	43,361	14,551	1486	13	31,263	28,148
대구	38,424	20,155	14,174	4095	27,678	9864	877	5	21,063	17,361
인천	34,519	17,402	9935	7182	24,589	9338	587	5	17,609	16,910
광주	23,371	11,162	9754	2455	16,768	5820	780	3	12,332	11,039
대전	23,097	11,349	8799	2949	17,085	5302	692	18	12,703	10,394
울산	13,704	7812	3777	2115	10,887	2533	284	0	7227	6477
경기	111,010	57,095	29,785	24,130	81,014	27,589	2370	37	57,158	53,852
강원	17,934	9984	5755	2195	14,872	2763	297	2	9463	8471
충북	18,096	9549	5888	2659	14,488	3242	359	7	9431	8665
충남	21,681	13,271	5661	2749	18,151	3250	278	2	11,238	10,443
전북	28,302	14,938	10,357	3007	21,463	6287	542	10	15,206	13,096
전남	23,970	14,081	7804	2085	20,530	3231	207	2	12,596	11,374
경북	30,500	19,002	8607	2891	25,825	4357	318	0	16,201	14,299
경남	39,944	23,091	12,004	4019	32,101	7345	494	4	21,025	18,919
제주	7711	5055	2064	592	6477	1147	87	0	4011	3700
합계 (%)	675,759 (100%)	365,809 (54.13%)	204,727 (30.30%)	105,223 (15.57%)	482,075 (71.34%)	179,733 (26.60%)	13,797 (2.04%)	154 (0.02%)	356,282 (52.72%)	319,477 (47.28%)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IMF 이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공계 학문 기피 현상과 특정 학문분야(의학, 약학, 교육학) 편중현상, 대학수학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저하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대학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입학전형과 같이 신입생의 합격시점이 다른 제도 하에서 학력수준을 일정한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기에 개발해서 신입생들에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을 2003학년도 현재 41위로부터 5년 후에는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입생들의 교육의 질과 직결된 이공계 지원자들의 적정 수준 유지에 필수적인 이공계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IMF 이후 확산된 이공계 출신자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치유하고 전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 전문 인력의 직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승진기회의 차별화를 해소 하는 등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정

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이 당면한 신입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고교 및 정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긴밀한 상호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학생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 운영과 새로운 수능능력시험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의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의 균형적인 양성의 시작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Ⅳ. 대학의 대응 방안

대학에서의 입학관리는 대학의 단위 업무 가운데 수험생 또는 학부모, 교사와 직접적인 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학의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무, 학사, 총무 및 기획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입학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적정수의 신입생을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대학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점차 세분화되고 복잡성이 증가되는 입학관리업무를 독립적인 하나의 단위 업무로 인식하는 관점보다는 대학의 전체업무시스템과의 조화와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Jones의 연구결과는 대학단위연구(Institutional Research)의 이론적 실제적 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대학단위연구 주요 활동, 배경지식, 기술 및 수단, 대학행정/관리상의 주요쟁점, 대학행정 주요관리 기능, 대학조직의 학습관련 기능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모집과 신

입생들의 교육의 질 관리를 대학의 업무시스템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입학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충원률 제고와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대학의 구조조정과 그 방향

현재 국내 대학들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의 학생모집과 신입생들의 교육 질 관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정책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학은 이를 토대로 입학관리전략을 개발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입학정원 정책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학의 입학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정원 정책을 분석해보면 미래 중점육성 학문분야에 대한 입학정원의 증원에 대하여는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가급적 허용해주는 반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자체조정을 하지 않는 한 증원을 철저히 불허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학문분야에 대하여는 과감한 '입학정원 증원허용의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억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의 대학의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대학간의 합병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효율성을 앞세운 인력 및 자원의 배정과 재배치 문제이며, 이는 대학이 가진 시스템의 특성상 내부적인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

국내의 대학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학의 존속을 위해서 현실의 변화를 직시하고
한 걸음 앞서서 지혜를 모음으로써 현재의 위기로 인하여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대학간의 능동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했으면 한다.

”

는 대학의 위상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2. 수요자 만족도 우선의 체계적 입학관리

2003학년도를 기점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대학입학전형 환경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대학을 선택해서 찾아오던 공급자 중심의 환경과는 달리, 수요자 중심적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대학은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그 대학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과 차별화된 점을 중심으로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입학전략과 홍보전략을 개발하고, 원하는 수준의 많은 지원자들이 그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능동적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도와 만족도에 분석을 기초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강한 분야에 대한 역량 집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가-보완-전략기획이 하나의 일관된 주기로 관리가 가능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3. 전형 단위별 입학업무관리 주기

일반적으로 대학의 경우 입학관리의 주기를 1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시와 정시, 특별전형 등으로 세분화된 입학관리체제에서는 기존의 1년 단위 관리주기를 전형별 주기로 전환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입학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평가-보완-기획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 분석을 통한 객관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형 단위로 입학관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입학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기획도 전형 단위에 맞추어 실행하는 동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 환경 적응적 홍보체제 운영

대학에서 입학홍보는 대외홍보 못지않게 대학의 위상과 인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서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홍보효과 극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홍보 대상에 적합한 홍보매체와 홍보주기, 자료구성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 대비 효과를 정량화하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홈페이지(동화상 입학설명회 포함)를 통한 입학홍보는 지속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홈페이지 체제로부터 포털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능동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고대상의 확대, 광고효과, 지속성 및 접근성 측면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학홍보와 관련된 대상과 목적에 따른 최적의 홍보체제 운영이 필요하다.

5. 대학의 능동적 예비교육과정 운영

세분화된 다양한 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동일 대학이 실시하는 전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는 만큼 합격 시점이 다른 신입생들의 질 관리 또한 이러한 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대학은 다양한 목적을 갖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예비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수시전형을 통해서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학문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대학수학능력에 미달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외에도 신입생들의 창발성과 참여를 격려함으로써 능동적인 대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발적 학습 환경 조성 및 관심사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을 적극 지원하는 신입생 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등도 결과적으로는 신입생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V. 맺는 말

현재 국내 대학들은 학생모집과 신입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 문제 등 대학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2003학년도를 기점으로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고등교육영역에서의 수급 불균형 문제에 따른 지방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와 이공계 지원자의 급감에 따른 교육의 질 관리의 심각성은 앞으로 국내 대학교육의 부실을 우려해야 할 만큼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대학경영의 부실화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대학으로의 집중화 경향은 대학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들은 최악의 경우 존폐 문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현시점에서 전남·광주 지역의 국립대학 통합계획은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곧 국내 대학들 간에도 M&A, 통폐합,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폐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구노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국내의 대학들이 최악의 사태를 앓아서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학의 존속을 위해서 현실의 변화를 직시하고 한 걸음 앞서서 지혜를 모음으로써 현재의 위기로 인하여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대학간의 능동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했으면 한다. 대학
교육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핵심 정책과제 보고서.
전국대학교 입학관리자 협의회. 제 1회 정기총회
및 하계연수 자료집. 2003. 6.
한국교육개발원 (2003).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
형 분석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계획과 향후 방향. 제 11회 대학교육 정책포
럼. 2002. 11.
EBS. EBS 대입설명회. 2003. 4.

Jones, L. G.. Teaching Material in Institutional
Research Class Notes. Athens, GA : The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황대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MIT 및 U.C.
Irvine 교환 교수, 미국 IBM Watson 연구소 초빙연구원, Open
Cyber University 기획운영위원장, WTCA(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교육 및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균관대학
교 입학처장, 교육정보화 자문위원, 여성부·통일부 자문위원 등
으로 활동 중이다.